

17세기 일본에서의 『聖學十圖』 수용 양상 연구

A Study on the Acceptance Phase of *SeongHakSipDo*-Joseon Edition
in Japan in the 17th Century

이 유 리 (Lee, Eury)*

◁ 목 차 ▷

- | | |
|----------------------|---------------------|
| 1. 서 론 | 3.1 『성학십도』의 유통 양상 |
| 2. 「성학십도」의 편찬 과정과 간행 | 3.2 일본에서의 수용 방식과 판본 |
| 2.1 「성학십도」의 편찬과 수정 | 4. 결 론 |
| 2.2 16세기 「성학십도」의 간행 | <참고문헌> |
| 3. 17세기 일본에서의 수용 | |

<초 록>

이 연구는 16세기 조선의 성리학 발전을 이끌었던 이황의 『성학십도』의 조선에서의 편찬 및 간행 과정과 17세기 일본에서의 유통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1569년 교서관에서 처음 간행된 후에도 이황은 지속해서 수정 작업을 하는 한편, 비교적 단 기간에 여러 지역에서 간행되었는데 『고사촬요』에 기재된 곳만 7개의 지역이다. 이에 따라 현전하는 16세기 판본은 저마다 반영된 수정 사항에 차이를 보인다.

임진왜란 당시 이 책 역시 일본에 약탈되어, 17세기 일본에서 조선의 성리학이 이황의 학문을 중심으로 수용되는 경향 속에서 조선본을 직접 소장하거나, 필사하거나, 상업 출판으로 간행되는 방식으로 수용되었다. 특히 『성학십도』를 직간접적으로 수용한 개인의 경우 기존에 잘 알려진 당시 조선본 주요 소장자들인데, 대부분 지식인층이다. 또한 개인이 소장한 경우는 수정 이전 판본과 수정 이후 판본 모두 각각 소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업 출판으로 간행된 것은 내용을 통해 두 종류의 판본을 검토하여 절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성학십도』를 통해 17세기 일본에서의 조선본 유통 및 수용 양상을 일부나마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다른 서적에 대한 동일한 검토가 축적된다면, 임진왜란 이후 조선본의 유통 및 수용 양상에 대해 전체적인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要語: 聖學十圖, 李滉, 閑室三要, 野間三竹, 林羅山, 和刻本, 한일서적교류사

* 문화재청 인천항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감정위원(dreamy6214@naver.com)

투고일: 2020년 11월 20일 최초심사일: 2020년 12월 1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16일
서지학연구, 제84집, 205-227,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4.205>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SeongHakSipDo* (The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 is written by Yi Hwang (李滉) who led the development of Neo-Confucianism in Joseon in the 16th century and the distribution in Japan in the 17th century.

Even after it was first published in 1569, Yi Hwang continued to make corrections, and meanwhile, it was published in various regions. According to *Kosachalyo* (攷事撮要), there are seven areas publishing this book. Therefore the existing 16th century editions of this book differ in their own revisions.

During Imjin War (壬辰倭亂) in 1592, there are much of books looted by Japan, and *SeongHakSipDo* was not exception. And in Japan in the 17th century, this book was accepted as a collection, manuscript, or commercial publication. In particular, individuals who directly or indirectly accepted the Joseon books were well known to the public at the time, most of whom were intellectuals. And the readers were in possession of both the editions before and after modification. And what was published as commercial publication is thought to have been compromised by reviewing two types of editions through content.

As above, the *SeongHakSipDo* showed some aspects of the distribution and acceptance of Joseon books in Japan in the 17th century. If the same review of other books is accumulated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distribution and acceptance of Joseon books after Imjin War will be understood from the overall perspective.

Key words: *SeongHakSipDo*(聖學十圖), The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 Yi-Hwang(李滉), Kankitsu Sanyo(閑室三要), Noma Sanchiku(野間三竹), Hayashi Razan(林羅山), book exchanging between Joseon and Japan in the 17C

1. 서론

16세기까지 조선에 축적된 학문 및 출판문화사적 성과는 임진왜란으로 일본에 전파되어 근세 일본의 새로운 경향을 낳았다. 중세까지 일본에서는 博士家와 禪僧들을 중심으로 유학이 수용되고 있었다. 博士家は 고대부터 각 가문에서 祕傳되어 온 텍스트를 훈고학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선승들은 중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가져온 朱熹의 『四書集註』 등을 통해 儒佛一致論 입장에서 宋學을 수용하였으나, 성리학 자체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16세기까지 명나라와 조선에서 성리학이 국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이러한 유학 수용 경향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임진왜란으로 유입된 조선의 서적들은 선승들을 중심으로 성리학 자체에 관심을 돌리는 매개체가 되었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히 16세기 조선의 성리학을 발전시킨 李滉과 관련된 서적은 근세 초기 유학자들의 성리학 수용에 길잡이가 되었다.¹⁾ 그리고 그들이 받은 영향은 1630년대부터 급속히 성장하는 상업 출판에도 반영된다. 개인적으로 수용한 조선본 및 필사본 등은 차치하더라도, 17세기 동안 상업 출판된 이황 관련 서적은 현재 알려진 것만 10종 가까이 된다. 『聖學十圖』는 그 중 하나이다.

『성학십도』는 1568년(선조 1) 이황이 막 즉위한 어린 선조에게 올린 책으로 도설을 통해 성리학의 요점을 나타냄으로써 군왕의 도를 설명한 것이다. 이 책은 이황의 학문이 집약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17세기 일본에서도 개인이 조선본을 소장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업 출판으로도 간행되어 비교적 널리 읽혔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책은 초간된 이후 이황에 의해 끊임없이 수정되는 한편, 도서관에서 초간된 이후 여러 지역에서 간행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현전하는 16세기 판본 사이에는 외형 및 내용의 차이가 발견된다. 이처럼 異本들이 임진왜란 직전까지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17세기 일본에서도 모두 동일한 판본을 수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근세 초 일본 성리학의 형성과 전파에 이황 관련 서적이 상당 부분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서적에 대한 일본 유입 경로와 유통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 전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유통 양상은 당시 일본에 미친 조선본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현전본을 통해 당시의 수용 인물과 방식, 판본의 계통을 통해 어느 정도는 파악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6세기 조선에서 이루어진 『성학십도』의 수정 과정과 판본을 살펴보고, 이 중 어떠한 판본이 17세기 일본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현전본을 통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관련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²⁾ 언급되지 않은 현전본이 있거나,

1)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65)가 대표적이다.

일본에서의 수용에 대해서는 주로 사상사적 영향 혹은 상업 출판에 초점을 맞춰 전체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되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현전본을 중심으로 보충하여, 궁극적으로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서의 조선본 유통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성학십도」의 편찬 과정과 간행

2.1 「성학십도」의 편찬과 수정

이황은 기존의 도설을 인용하면서 일부 수정하기도 하였는데, 1568년 선조에게 헌상한 후에도 계속해서 수정 작업을 이어나갔다. 비록 1600년(선조 33)에 간행된 『退溪先生文集』에 수록되기까지도 모든 수정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으나, 현전본을 살펴보면 도서관에서 초간본이 간행된 이후 책의 크기와 내용에 단계적으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문의 수정 과정을 중심으로 「성학십도」의 편찬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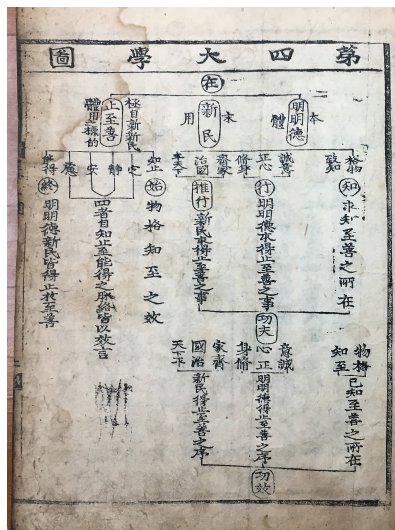
2.1.1 초기 「성학십도」의 체제

편찬 초기의 「성학십도」의 본문은 초간본인 도서관본을 통해 살펴보면, 크게 이황이 이 책과 함께 선조에게 올렸던 「進聖學十圖劄子」와 10개의 도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도설은 도식을 제시한 후에 해설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도설은 주희를 비롯하여 북송대부터 명대의 유학자, 그리고 유일한 조선인인 권근의 도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차례대로 “太極圖”, “西銘圖”, “小學圖”, “大學圖”, “白鹿洞規圖”, “心統性情圖”, “仁說圖”, “心學圖”, “敬齋箴圖”, “夙興夜寐箴圖”이다. 10편의 도식은 이황이 저술한 “백록동규도”와 “숙흥야매잠도”를 제외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다. 도식에 대한 해설은 주희의 것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으나, 전체 해설은 모두 이황이 하였

2) 서지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성학십도」에 대한 연구로 윤병태, “退溪書誌의 研究,” 『퇴계학과 유교문화』 5(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77)가 있다. 그리고 철학 및 사상사 분야에서 금장태, 「『聖學十圖』와 퇴계철학의 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문석운, “退溪의 『聖學十圖』 修正에 대한 연구,” 『退溪學報』 제130집(퇴계학연구원, 2011).; 전병욱, “林隱 程復心の 『四書章圖』와 退溪의 『聖學十圖』,” 『退溪學報』 132(퇴계학연구원, 2012) 등이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수용 및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阿部吉雄(1965); 柴田篤, “<聖學十圖>と江戸儒學-『白鹿洞書院揭示』と『聖學圖』を中心として-,” 『퇴계학논총』 16(퇴계학부산연구원, 2010) 등이 있다.

3) 「성학십도」의 체제와 수정 과정에 대해서는 문석운(2011) 논문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황의 수정 사항에 초점을 맞춰 주로 서간을 통하여 수정된 이유와 이에 반영된 이황의 사상을 다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 논문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나, 수정 과정에 초점을 두어 이후의 절에서 다룰 16세기 판본 간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다. 또한 기존에 도설 중심으로 저술된 정복심의 『四書章圖』와 권근의 『入學圖說』도 참고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이황이 송대부터 성리학의 핵심이 되는 학설을 집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⁴⁾ 그런데 초간본에서 네 번째로 수록된 「대학도」는 권근의 「입학도설」에서 인용된 것인데, 이황은 여기에 수정을 가하였다. 「입학도설」의 16세기까지의 판본 중 가장 늦은 시기인 1547년 榮川本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우선 우측의 ‘外極規模之大<三綱>內盡節目之詳<八條>’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在’의 세 하위 항목 중 좌측의 ‘止於至善’을 ‘止至善’으로 바꾸었다.



<그림 1> 「성학십도」 순천본(조선대) 및 「입학도설」 1547년 영천본(일본 국립공문서관) 비교

또한 제6도인 “심통성정도” 역시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 이는 上圖, 中圖, 下圖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程復心(1257-1340)의 『사서장도』에서 인용한 상도는 「성학십도」에서 차이를 보인다.⁵⁾ 원 안의 ‘心統性情’이라는 글자가 원본과 달리 일렬로 되어 있고, 그 아래 제3단의 글자가 원본에서 ‘具愛之理’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具愛之理曰仁’ 등으로 바뀌어 있다. 또한 제4단의 내용 중 ‘恭遜之心’이 ‘辭讓之心’으로 되어 있다.

2.1.2 1571년 해주본 간행 이전

이후 2.2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책은 교서관에서 초간된 이듬해인 1570년(선조 3)에 하동과

4) 문석윤(201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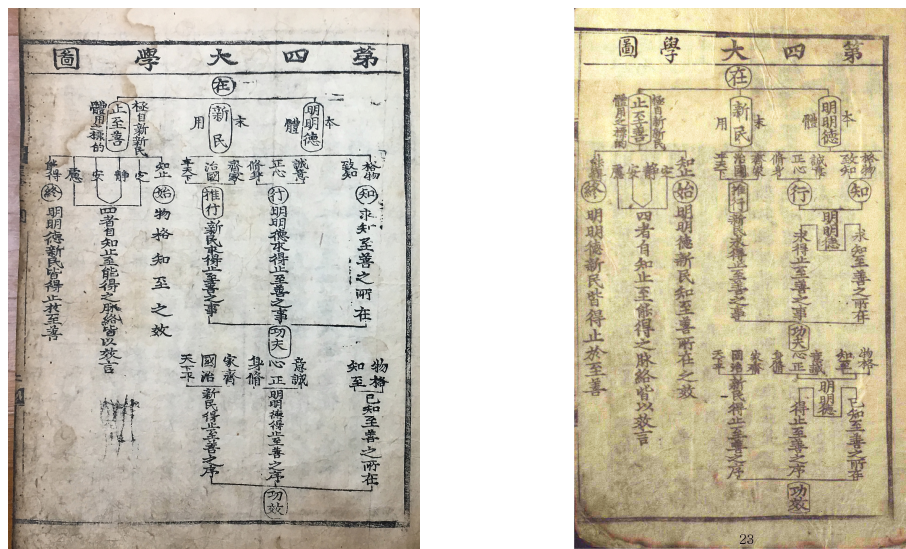
5) 문석윤(2011), 24.

순천 등에서 간행되었다. 내용 자체에 큰 변경 사항은 없으나, 반엽 당 행자수를 비롯한 판식에 변동이 있다. 특히 외형적인 면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전체 크기이다. 이 역시 이후에 언급하겠으나, 이황은 초간본이 간행된 후 기대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책이 너무 커서 보기 힘들다고 언급하고 있어, 초간본의 크기가 컸음을 알 수 있다.⁶⁾ 그런데 2.2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1570년 하동과 순천 간본부터는 도서관 추정 간본에 비해 축소되어 있다.

2.1.3 해주 간행 이후

내용적으로 가장 많은 변화가 보이는 것은 1571년 해주 간본이다. 수정 사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대학도”와 “심통성정도”의 일부 내용, 제7도인 “심학도”와 제8도인 “인설도”의 위치 변경, 그리고 1568년 이황이 올린 상소문인 “무진봉사”의 추가이다.

먼저 “대학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음 편찬할 때 원본을 이미 수정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황은 초간본 간행 이후인 1569년 9월 30일 기대승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정할 곳이 있었으나 이미 간행된 후라 그럴 수 없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정 사항을 보내어 朴淳과 함께 상의했으면 한다고 하였다.⁷⁾



<그림 2> 수정 이전 순천본(조선대) 및 수정 이후 해주본(국립중앙도서관)의 “大學圖” 비교

6) 李滉, 『退溪集』 卷18 「書」.

“答奇明彦. 恐悚十圖, 聞已畢刊。(中略)故敢白此圖. 初謂字不欲微細, 其長廣皆要寬占, 以致圖本樣子太大, 其於作帖玩閱, 殊有不便適者, 未及改謀, 而刊刻已了, 今何得冒譏訕, 而欲改作乎. 爲可恨耳.”

7) 奇大升, 『高峯全書』 “兩先生往復書” 卷3.

해주본 및 그 계통본과 이전 판본을 비교해보면, 세 부분이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 첫 번째는 ‘止至善’의 하위 항목 중 ‘知止’ 밑의 내용을 ‘明明德新民止至善所在之效’로 바꾸었다. 두 번째는 ‘新民’과 ‘明明德’ 사이에 있는 하위 항목 중 ‘行’ 밑에 있는 내용에서 첫 부분인 ‘명명덕’을 ‘行’과 ‘知’ 사이로 옮겼다. 마찬가지로 ‘行’ 밑에 있는 ‘功效’에서도 ‘明明德得止至善之序’의 ‘명명덕’을 중간으로 옮겼다. 이황이 이를 수정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선행 연구에는 ‘知止’와 관련된 八條目과 三綱領의 관련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지지 않게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언급한 바가 있다.⁹⁾

이황은 “대학도”뿐만 아니라 이미 원본을 수정한 바 있는 “심통성정도”에 대해서도 변화를 주었다. 상도의 제4단 아래 공백에 ‘臣謹按, 程子云, 信無端, 此有信之端. 竊恐當從程子說.’이라는 그림에 대한 이황의 주석을 추가하였다.

또한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그린 중도와 하도에도 수정을 가하였다. 중도는 원에 들어간 ‘仁義禮智’, 하도 역시 원에 들어간 ‘虛靈智覺’이라는 글자 간의 위치가 바뀌었다.

이어서 제7도와 제8도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 이 역시 수정 이유를 이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수정을 통해 제6도인 “심통성정도”와 제7도 “심학도”는 심성 문제를 다루고, 제8도부터 제10도는 심성 수양 방법을 제시하게 되어, 본질과 실천이라는 확실한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¹⁰⁾

마지막으로 이황이 올린 상소문을 모아 엮은 ‘무진봉사’가 추가되었다. 이는 해주본 및 그 계통본과 그 이전 판본을 구분 짓는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2.2 16세기 「성학십도」의 간행

「성학십도」의 최초 간행 시기는 「宣祖實錄」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1568년 12월 1일에 이황이 이 책을 헌상하였고,¹¹⁾ 이듬해인 1569년 9월 4일에 선조가 40여 건 반사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¹²⁾ 따라서 이황이 올린 후, 왕명으로 교서관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이 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용에 수정이 가해지는 한편, 여러 지역에서 간행되었다. 「攷事撮要」의 판본 중 1585년(선조 18) 목판본에 확인되는 지역만 모두 7곳으로, 남원·순천·진안·榮川·평양·해주·하동이다. 이 중 현존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순천·하동·영천·해주본이다.

8) 문석윤(2011), 20.

9) 문석윤(2011), 21.

10) 금장태, 「『聖學十圖』와 퇴계철학의 구조」(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178-179.

11) 「宣祖修正實錄」 1年(1568) 12月 1日.

“李滉進劄上聖學十圖.”

12) 「宣祖實錄」 2年(1569) 9月 4日.

“上頒賜聖學十圖四十餘件, 賜中綿子, 每一人二斤.”

이 외에도 『고사촬요』에는 없으나, 국립중앙도서관에 1572년 함흥부에서 간행된 판본이 있다.¹³⁾ 아래의 표는 16세기에 간행된 판본의 현존본을 시기 순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 1> 16세기 조선본 「聖學十圖」의 현존본

간행시기	간행지	소장처	서지사항	비고
1569년	[校書館]	계명대, 일본 宮内廳 書陵部	12張; 插圖, 四周雙邊, 半郭 38.7x33.4cm, 有界, 22行32字; 47.0x37.3cm	- “戊辰封事” 없음. - 이황의 수정 사항이 반영 되어 있지 않음
1570년	河東	성암고서박물관	28張; 插圖, 四周單邊, 半郭 26.3x20.3cm, 有界, 12行20字, 註雙行; 32.2x23.8cm	- “戊辰封事” 없음 - 해주본 이전 계통 - 刊記‘隆慶四年河東開刊’
1570년	順天	조선대	27張; 插圖, 四周單邊, 半郭 25.4x20.4cm, 有界, 12行20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34.2x23.5cm	- 刊記‘隆慶四年順天開刊’ - 해주본 이전 계통 - 後印本으로 추정
1571년경	海州	고려대, 국립중앙도서관	41張; 插圖, 四周單邊, 半郭 25.2x16.6cm, 有界, 11行22字, 註雙行, 上下內向墨魚尾; 31.8x20.6cm	- “戊辰封事” 수록 - 고려대본은 裴三益 구장서
1572년 5월 이후	咸興	국립중앙도서관, 성균관대 존경각	27張; 插圖, 四周單邊, 半郭 25.0x20.1cm, 有界, 12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일부 上下2葉花紋魚尾); 32.8x23.0cm	- “戊辰封事” 없음. - 해주본 이전 계통
1572년 8월 이후	榮川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 성균관대 존경각, 일본 국립공문서관 등	41張; 插圖, 四周單邊, 半郭 24.5x17.2cm, 有界, 11行22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34.5x22.2cm	- 해주본의 복각본
[1571년 이후]	未詳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尊經閣文庫	41張; 插圖, 四周單邊, 半郭 25.2x17.0cm, 有界, 11行22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33.0x20.9cm	- 해주본 계통 - 각수명 있음
[1571년 이후]	未詳	전남대	41張; 插圖, 四周單邊, 半郭 26.5x16.7cm, 有界, 11行22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24.5x20.8cm	- 해주본 계통 - 각수명 있음

위의 표를 통해 1569년 처음 간행된 이래, 매년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간행되었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그 중 1570년에는 하동과 순천, 1572년에는 함흥과 영천의 경우와 같이, 같은 해 최소 두 차례 다른 지역에서 각각 간행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1572년의 경우 함흥에서는 수정 이전 판본, 영천에서는 수정 이후 판본이 간행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이 책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널리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학십도」의 판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도”와 “심통성정도”의 일부 수정 및 “심학도”와 “인설도”의 위치 변경 여부¹⁴⁾와 “무진봉사”의 유무·반엽 당 행자수·“진성학십도차자”에서

13) 청구기호: 古朝17-14

의 차이점을 통해 크게 해주본 이전 계통과 해주본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해주본 이전 계통으로 교서관, 하동, 순천, 함흥본이 있다. 이들 판본에는 “무진봉사”가 없고, 교서관본을 제외하면 행자수가 12행20자이며, “진성학십도차자”에서 제목 다음 행에 ‘判中樞府事<臣>李滉謹再拜’라고 되어 있으며, 서두가 ‘上言<臣>’이다.

한편, 해주본 계통에는 “무진봉사”가 있고, 행자수가 11행22자이며, “진성학십도차자”에서 이황의 銜名이 없으며, 서두가 ‘<臣>云云<臣>’로, 해주본 이전 계통과 차이를 보인다. 해주본과 영천본 등 해주본 계통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선행 연구에서 이황의 서간을 통해 정황적으로 1569년 초간본 간행 이후의 시기, 1570년 경 성주에서도 간행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¹⁴⁾ 실물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 아래의 내용에서는 표 1에서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1570년 하동본을 제외한 각 판본에 대해 해주본 이전 계통과 해주본 계통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2.1 해주본 이전 계통

2.2.1.1 1569년 교서관 간행 추정본

이 판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록을 통해 간행 시기 및 주체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본 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없어 현전 여부조차 알기 어렵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황은 초간본의 크기가 커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외형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 계명대 소장본이 1572년 함흥본에 비해 삽도와 글자가 모두 크고, 지질이 오래되었으며, 판각이 정밀하다는 점을 들어 초간본으로 추정한 바가 있다.¹⁶⁾ 이 책의 전체 크기는 47.0 x 37.3 cm로, 다른 판본에 비해 크다.

또한 이와 동일한 판본이 궁내청 서릉부에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¹⁷⁾ 서릉부분 역시 전체 크기 47.1 x 31.2 cm, 반곽 38.5 x 33.1 cm으로 계명대본과 거의 일치한다. 淡茶色表紙이고 제침이 중앙에 붙어 있으나 서명은 없다. 본문의 형식은 다른 판본과 동일한데, 도설의 순서를 비롯하여 이황의 수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무진봉사”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제10도 “숙흥야매잠도”에 이어, 1568년 12월 이황이 올린 “진성학십도차자”가 2장 수록되어 있다. 책지는 비교적 두꺼우며, 매 장마다 중간에 접힌 자국이 있다.

서지사항 역시 계명대본과 동일하다. 판심이 없고, 매 반엽 광곽의 좌측 혹은 우측 상단에 書耳가

14) 문석윤(2011), 20-44.

15) 윤병태(1977), 118-119.

16) 윤병태(1977), 119.

17) 청구기호: 300-55

있는데, ‘聖學圖幾’라 되어 있다는 점이 크기와 더불어 다른 판본과 구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차자 부분에는 ‘聖學十圖筭子幾’라 되어 있다. 참고로 서릉부분에는 장서인으로 冊首에 서릉 부의 전신인 宮內省 圖書寮에서 날인한 『帝室/圖書/之章』(正方形)이 있다.

2.2.1.2 1570년 순천 간행 목판본

책말에 음각으로 된 ‘隆慶四年/順天開刊’이라는 간기를 통해 간행 시기와 지역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발문 등 간행 경위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다만 간행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당시의 순천부사는 李選(1522-1586)이었다.

순천본은 교서관 추정 간본과 비교해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크기이다. 전체 크기 34.2 x 23.5 cm, 반곽 크기 25.4 x 20.4 cm이다. 같은 해에 간행된 하동본 역시 크기를 포함해서 서지 사항이 동일하다. 또한 순천본과 하동본 모두 제5·6도가 수정되어 있지 않고, 제7·8도설의 순서가 바뀌어 있지 않으며, “무진봉사”가 없다. 하동본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두 판본의 관련성은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적어도 이 시기부터는 이황의 바람대로 크기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크기가 줄어든 영향에서인지 반엽당 행자수도 교서관본과 다른 12행20자로 바뀌었다.

순천본은 조선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판본에 1570년 간기가 있으나, 책지의 이면에 있는 다수의 牒畧의 작성 시기가 1573년인 것으로 보아 후인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문의 형식과 내용은 다른 판본과 동일하나, 교서관본과 달리 광곽 형태가 사주단변이다.

2.2.1.3 1572년 함흥 간행 목판본

함흥본은 책말에 새겨진 참여 인물 명단에 咸鏡道觀察使兼兵馬節度使 咸興府尹 李友閔(1515-1574) 등이 포함되어 있고, ‘隆慶六年五月日’이라는 간기가 있다. 이우민은 1571년 3월 21에 함경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다.¹⁸⁾

이 책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¹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사촬요』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판본은 순천본과 비교했을 때 서지사항은 동일하나, 다른 판본이다.

함흥본은 이황의 수정 사항이 반영된 해주본이 이미 간행된 후임에도 불구하고 수정 이전 판본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후 살펴볼 영천본은 인맥에 의해 직접 보내져 이듬해 바로 간행된 것에 비해, 함흥에는 아직 유통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18) 『宣祖實錄』 4年 3月 21日.

“以李友閔爲咸鏡監司.”

19) 청구기호: 古朝17-14

2.2.2 해주본 계통

2.2.2.1 1571년경 해주 간행 목판본

해주본에는 간기 등 간행 정보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고려대 만송문고의 裴三益(1534-1588) 구장서²⁰⁾ 표지 뒷면에 ‘隆慶壬申(1572)冬黃海監司李清之印贈’이라는 목서가 있다.²¹⁾ 이를 통해 1572년에 황해도 관찰사인 李拭(1522-1587)이 이 책을 간행하여 이황의 문인이기도 한 배삼익에게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식은 1572년부터 1574년 이조참의에 제수되기까지 황해도 관찰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후에 자세히 언급하겠으나 영천본의 책말에 있는 榮川郡守 許忠吉의 지어에서 해주본을 모각했다는 내용이 있다. 고려대본과 영천본은 동일 판본이 아니나, 본문과 행자수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대본이 해주본인 것으로 판단된다.²²⁾ 해주본은 이황이 요구한 수정 사항이 모두 반영된 판본으로,²³⁾ 이러한 판본 중 가장 앞선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2.2.2.2 1572년 영천 간행 목판본

책말에 수록된 허충길의 지어에 따르면 황해도 관찰사 朴承任(1517-1586)이 해주본을 얻어 伊山書院에 보냈는데, 후학들의 청에 의해 이를 판각하여 널리 유포하였다고 하였다.²⁴⁾ 박승임은 이황의 문인이자 영천 출신으로, 1571년 7월 8일에 황해도 관찰사에 제수되어²⁵⁾ 이듬해 9월 20일에 우승지에 임명되기까지²⁶⁾ 황해도 관찰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주본은 적어도 1571년에는 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尹斗壽(1533-1601)의 황해도 관찰사 부임 장면을 그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留營首陽館延命之圖』를 통해 윤두수가 1571년 박승임이 부임하기 전까지 황해도 관찰사에 재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역시 이황의 문인이었기 때문에 박승임에 앞서 이 책을 간행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²⁷⁾

20) 청구기호: 만송貴722

21) 이와 동일한 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다.(청구기호: 古1250-64)

22) 윤병태(1977), 122.

23) 문석운(2011), 46.

24) 郡斯文丈黃海道觀察使朴承任得海州本, 印送伊山書院, 有志後學等請壽梓廣布, 予樂其篤志, 令拙手模刻爾.

25) 『宣祖實錄』 4年(1571) 7月 8日.

“以朴承任爲黃海監司, 宋庭筍爲求禮縣監.”

26) 『宣祖實錄』 5年(1572) 9月 20日.

“以柳希春爲藝文館提學, 奇大升爲大司諫, 朴承任爲右承旨.”

27) 윤병태(1977), 122.

영천본은 해주본의 복각본이다. 책말의 허충길 지어와 교정자 및 각수 명단, 목기만 제외하면 본문은 거의 동일하나, 권점이 없다. 권점은 구두점뿐만 아니라 강조의 표시로도 사용되었는데, 해주본은 도서관 초간본과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다.

2.2.2.3 1571년 이후 간행지 미상 목판본(일본 국립국회도서관, 尊經閣文庫, 전남대 소장)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및 尊經閣文庫 소장본은 같은 판본인데, 간기가 없어 간행 시기 및 지역을 알 수 없다. 서지사항 및 내용은 기본적으로 해주본과 동일하나, 각수명(云·永·운·巳·仁)과 제10장 裏面의 권점 절반이 음각으로 되어 있다는 점, 제16장의 상흑구가 상어미와 붙어 있는 형태 등 판본 상의 차이점이 발견되므로 같은 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주본 및 영천본과 달리 대두 방식에 차이를 보이는데, 대두된 행의 다음 행부터 첫 칸을 비워 놓은 것이 아니라 광곽을 내려 첫 칸을 아예 없앴다. 이 판본은 해주본의 또 다른 복각본으로, 『고사촬요』에 기재된 곳 중 현전본이 알려져 있지 않은 나머지 5곳에서 간행된 판본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남대본 역시 간기가 없다. 수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나, 해주본은 물론 앞서 언급한 계통본들과도 다른 판본이다. 이 판본은 대두 방식이 尊經閣文庫本과 동일하나, 각수명을 비롯하여 앞서 언급한 특징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전남대본은 해주본 계통본 중 하나로, 尊經閣文庫本과 마찬가지로 『고사촬요』에 기재된 곳 중 현전본이 알려져 있지 않은 나머지 5곳에서 간행된 판본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17세기 일본에서의 수용

3.1 『성학십도』의 유통 양상

『성학십도』의 일본 유입 및 유통에 대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의 전반적인 조선본 유통 양상 속에서 현전본을 살펴본다면, 『성학십도』 소장자의 신분적 특징과 수용 판본의 계통과 방식 등 유통 전반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의한 조선본 유출에 대한 기록은 단편적이다. 현재 일본의 廣島에 있었던 安國寺의 주지 惠瓊(?-1600)가 1592년 5월에 경상도를 담당했던 毛利輝元(1553-1625)와 합류하였는데, 6월 7일에 그가 安國寺로 보낸 편지에 서적을 배로 보낸다고 언급한 것²⁸⁾과 1593년에 豐臣秀吉(1537-1598)가 後陽成天皇(1571-1617)에게 조선의 활자와 서적을 헌상한 사실²⁹⁾은 잘 알려진

28) 新村出, 『南蠻廣記』(東京: 岩波書店, 1925), 162.

내용이다.

이들 뿐만 아니라 에도시대에도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米澤藩의 上杉家, 仙臺藩의 伊達家, 佐賀藩의 鍋島家 등 임진왜란 참전 다이묘[大名]들의 장서에 조선 전기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각각 주둔지를 중심으로 서적을 약탈했을 것으로 생각된다.³⁰⁾

徳川家康는 직접 참전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궁내청 서릉부와 국립공문서관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분배된 장서까지 합쳐서 생각해 보면, 위의 참전 다이묘에 비해 많은 수량의 조선본을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어떻게 많은 조선본을 소장하였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1600년 세키가하라[關が原] 전투에서 승리한 후 임진왜란 참전 다이묘가 다수 속한 반대편인 서군 측에서 몰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언급한 惠瓊 역시 서군에 협조하였다.

또한 임진왜란 약탈 서적 일부는 徳川家康를 거치지 않고 養安院藏書로 알려진 의사 曲直瀬正琳에게 소장되었다. 이 서적들은 중간에 소실된 것도 있으나 대대로 전승되다가 에도 말기 산일되어 현재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본 내에 유통되고 있던 조선본을 다이묘와 승려, 의사, 학자 등의 지식인층에서도 다수 수집하였다. 현재 尊經閣文庫로 잘 알려진 加賀藩의 前田家は 이후에 자세히 언급하겠으나, 5대 번주인 前田綱紀(1642-1724)가 가장 활발히 수집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藤原惺窩(1561-1619)와 그의 문인인 林羅山(1583-1657), 野間三竹(1615-1676), 角倉素庵(1571-1632)을 비롯하여 山崎闇齋(1618-1682)와 伊藤仁齋(1627-1705) 등 다수의 학자들이 조선본을 접하고 있었음을 장서인이 날인된 현전본과 기록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들은 서적상이나 주변 인물들과의 교류를 통해 입수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임진왜란 이후 조선본은 對馬藩의 구청무역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였다. 『倭人求請謄錄』과 1683년 宗家文庫의 목록인 『天和三年目録』을 통해 對馬藩에서도 조선에 요청하여 다수의 조선본을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7세기 간본이 가장 많다는 점³¹⁾은 앞서 살펴본 이들의 장서와 구별되는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현전본으로 확인되는 17세기 일본에서의 『성학십도』 수용 방식은 개인이 조선본을 직접 소장하거나, 이를 보고 필사하거나, 상업 출판으로 간행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자 수용한 조선본은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지역에서 활발히 간행되었던 만큼, 일본에서도 다양하게 수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는 현재까지 확인된 17세기 일본에서 수용된 『성학십도』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29) 川瀬一馬, 『古活字版之研究』(東京: 安田文庫, 1977), 151.

30) 이에 대해서는 이유리, “17세기 일본 간행 조선본 性理學書의 서지적 연구,”(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9), 21-24에 자세히 다룬다.

31) 천혜봉, “對馬島主宗家文庫藏 韓國典籍,” 『佛教美術』 8(동국대학교 박물관, 1985), 58.

<표 2> 17세기 일본에서의 「聖學十圖」 수용 방식

수용 방식	수용자	신분	판본 계통	현소장처	참고사항
원본 소장	閑室元佶	승려	해주본 계통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 徳川家康에게 받음 - 前田家와 동일 판본
	野間三竹	의사, 학자	영천본	일본 국립공문서관	이후 佐伯藩 藩主 毛利高標(1755-1801)에게 소장됨
	※ 前田家	다이묘	해주본 계통	일본 尊經閣文庫 ³²⁾	
	※ 曲直瀬正琳	의사	미상	소재 불명	大塚鑑 논문 ³³⁾
필사	林羅山	학자	해주본 이전 판본 계통	일본 국립공문서관	
간행	西村五郎兵衛	출판업자	해주본 이전 판본 및 해주본 계통	국립중앙도서관, 일본 蓬左文庫 등	
	武村新兵衛	출판업자	모두 참고	서울대 중앙도서관, 일본 蓬左文庫 등	

위의 표를 통해 원본을 직접 소장하고 있었던 인물은 주로 지식인층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일본에서 조선본을 다수 소장한 이는 조선본을 소장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막부 및 임진왜란 참전 다이묘 등 주로 권력층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³⁴⁾ 이는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왜인구칭등록」과 「덴와삼년목록」에 이 책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對馬藩을 통해 들어왔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3.2 일본에서의 수용 방식과 판본

앞의 <표 2>를 토대로 17세기 일본에서의 「성학십도」 수용 방식과 각자가 수용한 판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2.1 원본 소장

3.2.1.1 閑室元佶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徳川家康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서군에게 몰수한 조선본을 1601년 京都 伏見에 있는 圓光寺의 주지이자, 무사의 교육 기관인 足利學校의 교장인 閑室元佶에게 200건의

32) 尊經閣文庫 編, 「尊經閣文庫漢籍分類目録」(東京: 尊經閣文庫, 1934), 331.; 國立文化財研究所 編,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録: 日本 尊經閣文庫 所藏 韓國本」(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57.

33) 大塚鑑, “鮮籍備忘 - 附 養安院書目 -,” 「朝鮮學報」 48(朝鮮學會, 1968), 113.

34) 이유리(2019), 25.

서적을 하사하였다.³⁵⁾ 그가 하사받을 당시 서적 내역은 남아있지 않으며, 그가 죽은 후 점차 산일되었기 때문에 전모를 알기는 어렵다. 다만 에도 말기 佐々木目春行가 남긴 『畿内學校圓光寺藏書目録』에 기재된 조선본은 86건이다.³⁶⁾

현재 閑室元佶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과 足利學校遺蹟圖書館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국립국회도서관 소장본은 圓光寺에 있던 것으로, 점차 산일되고 있던 것을 1906년 당시 제국도서관에서 구입한 것이다. 총 403건 1,300여 책 중 閑室元佶 구장본은 60건이고, 이 중 조선본은 50건이나 모두 閑室元佶 장서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³⁷⁾

足利學校遺蹟圖書館 소장본은 조선본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이는 명판본까지 모두 15건이다.³⁸⁾ 이 명판본 역시 德川家康가 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 소장본은 閑室元佶가 圓光寺에서 이곳으로 옮긴 후 기증되었거나, 그가 죽은 후 옮겨졌을 것으로 보인다.

閑室元佶 소장 『성학십도』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³⁹⁾ 표지는 원래의 것 그대로이나, 목서명이 있는 제침은 일본에서 붙여진 것이다. 책말에 그의 장서인인 『敬復齋』라는 墨印이 있고, 책말에 『□□□□(‘円光常住’로 추정) 元佶(花押)』이라는 자필 목서가 있다. 전체 크기 35.1 x 21.1 cm이다.

3.2.1.2 野間三竹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책말에 영천군에서 간행되었다는 목기와 함께, 野間三竹의 장서인인 『白雲書庫』가 날인되어 있다.

野間三竹은 에도 전기 의사이자 한학자 및 유학자이다. 가업을 이어 의학에 정진하였으나, 1636년에는 法橋, 1638년에는 法眼이 되었다. 1640년에는 막부 쇼군의 시의가 되었다. 이처럼 그는 주로 의사로서 활동했지만, 어릴 때부터 藤原惺窩의 문인인 林羅山, 松永貞徳 및 松永尺五(1571-1652) 등에게 수학하면서 한학에도 매진하였다. 의학뿐만 아니라 역사,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여 편의 저술을 남겼다. 또한 서적을 활발히 수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현재 산일되어 있으나, 장서인을 통해 확인된 그의 장서 중 한적만 50건이 넘는다. 이 중 조선본은 『韻會玉篇』, 『五祖名臣言行錄』, 『異端辨正』 등 7건이 있는데, 『성학십도』도 포함된다.

野間三竹가 이 책을 입수한 경위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그와 비슷한 신분이면서 교유했던 林羅山의 아들인 林鷺峯(1618-1680)의 일기 『國史館日録』을 통해서 당시 일본 지식인층의 서적

35) 宇津純, “京都圓光寺舊藏閑室元佶手澤本目録,” 『參考書誌研究』 30(1985). 15.

36) 川瀬一馬, “駿河御讓本の研究,” 『日本書誌學之研究』 (東京: 講談社, 1943), 579.

37) 川瀬一馬(1943), 578.

38) 川瀬一馬, 『増補新訂足利學校の研究』 (東京: 講談社, 1974), 113-115.

39) 청구기호: 820-1

입수에 대해 참고해볼 수 있다.

『국사관일록』은 林鵞峯가 막부의 명으로 『本朝通鑑』의 편수를 맡게 되면서 그 과정을 남긴 일지로, 1662년(寬文 2) 10월 13일부터 1670년(寬文 10) 12월 30일까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그의 학문 활동뿐만 아니라 인맥을 통한 서적 貸借과 서사를 통한 서적 입수 등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⁴⁰⁾

그 중 조선본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1664년 11월 4일에 서사에서 가져온 『佔畢齋集』을 열람 후 구입하였다.⁴¹⁾ 또한 1665년 1월 6일에도 서사에서 가져온 『陽村集』 중 일본과 관련된 부분 23건을 필사하였다면서, 이 책은 예전에 水戶藩에 빌려서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⁴²⁾ 『점필재집』과 『양촌집』을 가져온 서사가 같은 곳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서사에서도 조선본을 취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사 외에도 1665년 2월 20일에는 養安院(曲直瀬玄理)이 왔을 때 『東文選』을 빌리기로 약속했다는 내용도 보인다.⁴³⁾ 이를 통해 개인 간 필요한 서적의 대차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막부의 시의였으며, 한학의 주류 학파였던 경학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던 그였으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상에 의해 이 책을 구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2.1.3 17세기 소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前田家, 曲直瀬正琳)

이는 17세기부터 현재 혹은 에도 후기까지 장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수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다. 먼저 前田家の 尊經閣文庫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주본 계통본이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입수 시기 및 경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前田家 역시 에도 초기부터 조선본을 비롯한 많은 장서를 소장하고 있었던 곳이다. 따라서 『성학십도』 역시 17세기부터 소장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前田家の 장서는 前田綱紀에 의해 본격적으로 형성된다.⁴⁴⁾ 현재에 이르는 尊經閣文庫의 명칭은 그가 붙인 것이기도 하다. 그가 저술한 『桑華書誌』를 통해 당시까지 前田家에서 소장하고 있던 장서는 前田綱紀의 조부와 부친, 그리고 그가 수집한 尊經閣 장서까지 세 가지가 있었다.⁴⁵⁾ 前田綱

40) 1662년(寬文 2) 10월 3일부터 1670년(寬文 10) 12월 31일까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林鵞峯의 서적 입수와 학문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田中尙子, “林鵞峯の書籍收集と學問 - 『國史館日錄』再考 -”, 『室町の學問と知の繼承』(東京: 勉誠出版, 2017), 182-204에서 다루고 있다.

41) 『國史館日錄』, 寬文 4年(1664) 11월 4日.

“今日書估來館中, 其所携之書中有朝鮮佔畢齋集, 閱見之則有載我邦事, 余心喜以爲, 是亦今般編集之一事也, 即求得之. 此書估者出入余家既十餘年, 與安成有舊交.”

42) 『國史館日錄』, 寬文 5年(1665) 1월 7日.

“電覽朝鮮權陽村集, 陽村名近, 自高麗末至朝鮮初, 以儒學鳴其國者也. 此書昔借水戶本見之, 今書估持來, 暫留焉, 其中寫二三件, 有預於我邦故也.”

43) 『國史館日錄』, 寬文 5年(1665) 2월 20日.

“已刻養安院法印元德法印來, 皆自廟堂歸路也. 約養安院借東文選.”

44) 菊池紳一, 『加賀前田家と尊經閣文庫 - 文化財を守り、傳えた人々』(東京: 勉誠出版, 2015), 3.

紀는 이를 八庫文籍이라는 8개의 분류 - “祕閣群籍” · “經庫群籍” · “史庫群籍” · “子庫群籍” · “集庫群籍” · “四庫副本” · “侯清叢書” · “滑耀叢書” - 로 나누고, 다시 각 분류 아래에 다시 발행국 및 관중에 따라 세부 항목을 나눴는데, 그 중에는 “朝鮮印本” · “朝鮮寫本” · “朝鮮石刻”도 있다.⁴⁶⁾ 따라서 17세기에 다양한 분야의 조선 문헌을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大塚鐙의 논문에는 작성 당시 大阪府立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던 養安院藏書 목록에 확인된다. 그러나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고, 목록 상 서명과 책수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판본의 계통 파악이 어렵다. 『養安院藏書』라는 장서인은 曲直瀬正琳의 호를 딴 것이나, 후대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曲直瀬正琳의 장서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책이 조선 전기본이라면, 曲直瀬正琳의 장서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3.2.2 필사

3.2.2.1 林羅山 필사본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는 林羅山의 장서인이 있는 필사본 『성학십도』가 있다. 담채색표지에 오침 안으로 정장되어 있고, 전체 크기는 32.0x22.9cm이다. 본문에 특별한 寫式은 없으나, 12행20자로 필사되어 있다. 장서인은 책수에 『江雲渭樹』, 『林氏藏書』, 『淺草文庫』, 『日本/政府/圖書』, 권말에 『昌平坂/學問所』가 있다.

본문은 “무진봉사”가 빠져 있으며, 본문의 도설도 수정 이전 판본과 동일하다. 전체적으로 글자체는 통일되어 있는데, 林羅山의 다른 필사본과 비교해봤을 때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林羅山 혼자 필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林羅山이 이 책을 필사한 시기와 입수한 경로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羅山先生文集』에 수록된 연보 중에는 林羅山이 22세인 1604년까지 읽은 서적의 목록인 『既見書目』에는 이 책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어도 그 이후에 접한 책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견서목』에 의하면, 라잔은 원래 家藏本이 없었기 때문에 초년에 주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서적을 구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 방법으로 그가 수학하기도 했던 교토 建仁寺의 莢甫永雄(1547-1602) 및 古澗慈稽(1544-1633)의 장서를 빌려보거나, 지인의 서적을 빌려 필사를 하거나, 서점에서 구하거나 하였다고 한다.⁴⁷⁾ 1605년 德川家康가 은퇴 후 駿府로 내려가서 駿河文庫를 설치했을 때 그가 이 문고를 관리하였는데, 이때 그는 서적을 자유롭게 열람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는 德川家康 사후 세 아들인 御三家에게 분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학십도』는 閑室元佑

45) 近藤盤雄, 『加賀松雲公』 中 (東京: 羽野知顯, 1909), 128-129.

46) 吉岡眞之, “前田綱紀收集『祕閣群籍』の目録について,” 『禁裏本と古典學』 (東京: 塙書房, 2009), 291-318.

47) 先生家所無藏書, 初在東山時, 見永雄慈稽所蓄逮歸家, 或閱書肆求之, 或借於所相識者寫之.

에게 하사한 것 외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⁴⁸⁾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林羅山이 『성학십도』를 필사하기까지의 과정은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해주본 이전 계통도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유입된 후 林羅山과 가까운 인물에게 소장되어 2차적으로 林羅山에게 수용되었다는 하나의 유통 과정을 파악해 볼 수 있다.

3.2.3 간행

일본에서는 17세기에 간행된 판본은 3종이 확인된다. 간행 시기 및 주체가 미상인 것, 1655년(承應 4)에 西村五郎兵衛 및 武村新兵衛에서 각각 간행된 것이 있다. 和刻本은 阿部吉雄가 지정한 바와 같이 도설은 수정되지 않은 상태이나,⁴⁹⁾ “무진봉사”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상업 출판된 판본은 적어도 해주본 이전 및 이후 판본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서사에서 간행된 다수의 화각본에 교감주가 있어, 異本과의 교감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는데,⁵⁰⁾ 이 경우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각 판본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¹⁾

3.2.3.1 [1655년(承應 4) 3월 이전] 미상 간행(阿部吉雄 소장본)⁵²⁾

책수에 『進聖學十圖筭子』(1-6張, 中縫部『聖學圖筭<子>』(제6장에만 「字」로 되어 있음)가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권수에 『第一太極圖』(1張表)가 있다. 이어서 「(低2格)太極圖說」(1張裏-3張), 「第二西銘圖」(4張表), 「(低2格)西銘」(4張裏-6張), 「第三小學圖」(7張表), 「(低2格)小學題辭」(10張裏-9張), 「第四大學圖」(10張表), 「(低2格)大學經」(10張裏-12張), 「第五白廉洞規圖」(13張表), 「(低2格)洞規後叙」(13張裏-15張), 「第六心統性情圖」(16張表), 「(低2格)心統性情圖說」(16張裏-18張), 「第七心學圖」(19張表), 「心學圖說」(19張裏-21張), 「第八仁說圖」(22張表), 「仁說」(22張裏-24張), 「第九敬齋箴圖」(25張表), 「(低2格)敬齋箴」(25張裏-37張裏), 「第十夙興夜寐箴圖」(28張表), 「夙興夜寐箴」(28張裏-30張) 순으로 이어진다. 본문의 형식은 조선본과 동일하나, 訓點이 있다.

판식은 四周雙邊, 無界, 9行18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이고, 판심에는 「聖學圖[]幾」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30장 이후에는 1568년 이황이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인 「(低2格)戊辰封事」(1-24張, 中縫部『退溪封事』)이 있다. 간기가 없고 전체 60장이다.

48) 川瀬一馬(1943), 640-673.

49) 阿部吉雄(1965), 440.

50) 이유리(2019), 195-198.

51) 화각본은 조선본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같은 해 다른 서사에서 간행된 두 판본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보다 상세하게 서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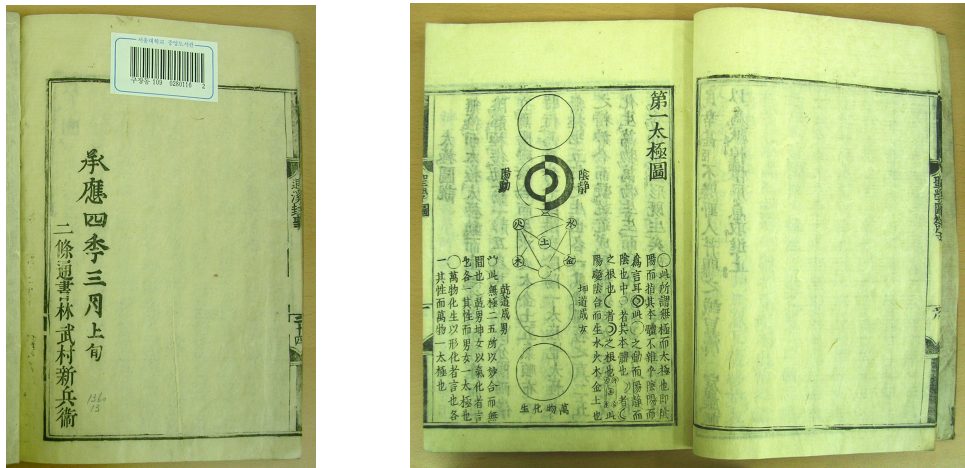
52) 阿部吉雄 소장본과 동일 판본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여, 여기에서는 阿部吉雄 소장본의 영인본(李退溪研究會, 阿部 吉雄 共編, 『(日本刻版) 李退溪全集』 下 (退溪學研究院, 1983), 248-277)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간기는 없으나, 이후에 살펴볼 같은 판본인 武村新兵衛 간본보다 빠른 것으로 보고, 간행 시기인 1655년 4월 이전으로 추정하였다. 전반적으로 武村新兵衛 간본보다 책판 상태가 양호하다. 또한 17세기 후반 불법 출판의 성행을 막기 위해 막부에서 간기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기 전까지 무간기본이 다수 보이는데, 이 중에는 화각본 『退溪先生自省錄』과 같이 개인이 서사를 통해 출판한 후 서사에서 간기를 추가하여 판매했을 가능성이 큰 경우도 보이고 있다.⁵³⁾ 『성학십도』 역시 이러한 간행 양상을 추정해 볼 수 있다.

3.2.3.2 [1655년] 武村新兵衛 後印本

武村新兵衛本은 위의 阿部吉雄 소장본과 같은 판본이나, 책말에 간기가 있다. 간기의 내용인 ‘承應四季三月<上旬>/ 二條通書林武村新兵衛開板’을 통해 1655년 교토의 서사 武村新兵衛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제1행의 시기 부분의 글자체와 제2행 간행자 부분의 글자체는 명조체로 서로 다르다. 제2행은 이후에 새긴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에 板元을 다시 새겨넣은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사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한 지침과 아래의 판본과 같이 판권 침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1696년(元祿 9)에 간행된 당시 서사 간행 목록인 『增補書籍目錄大全』과 이를 1709년(寶永 6)에 증수한 목록에는 각 서명의 상단에 판원이 표기되어 있는데, 두 목록 모두 ‘武村新’이라 되어 있어, 18세기 초반에도 계속 이곳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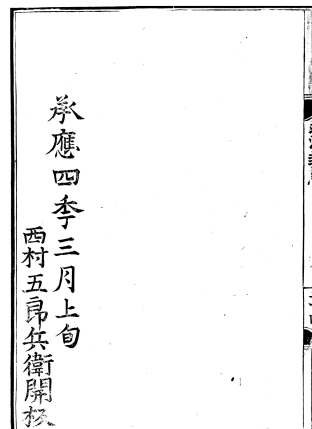
<그림 3> 1655년 추정 武村新兵衛 後印本(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53) 阿部吉雄(1965), 428-430에서 화각본 『자성록』은 무간기본, 1659년 훈점본, 1665년 村上平樂寺本이 있는데, 저자는 이 책을 野中兼山(1615-1664)이 간행했다는 기록을 통해 초간본은 그가 간행을 추진한 것으로 무간기본이 이에 해당한다고 추론하였다.

3.2.3.3 [1655년 3월 이후] 西村五郎兵衛 간행

이 판본은 앞서 살펴본 두 판본과 본문 및 훈점은 동일하나 판본은 다르다. 판식은 四周雙邊, 無界, 9行18字, 黑口, 上下內向黑魚尾이고, 판심에는 「聖學圖 幾」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30장 이후에는 1568년 이황이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인 「(低2格)戊辰封事」(1-24張, 中縫部「退溪封事」)가 있다.

이 판본에도 책말에 간기가 ‘承應四季三月<上旬>/[]西村五郎兵衛開板’과 같이 있는데, 제1행의 글자가 武村新兵衛와 매우 비슷하며, 제2행과 글자체가 동일하다. 따라서 오히려 이 판본이 더 앞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보서적목록대전」에 표기된 판원과 무간기 본과의 관계 등으로 볼 때 이 판본은 당시 성행하고 있던 기존 판본을 그대로 복제한 重版 형태의 불법 출판물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4> 西村五郎兵衛 간본의 간기(국립중앙도서관 소장)

4. 결 론

16세기 조선의 성리학 발전을 이끌었던 이황의 학문적 성과가 응축된 「성학십도」는 초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은 계속 이루어지는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간행이 이루어졌다. 「고사촬요」에 기재된 곳만 7개의 지역이다. 이로 인해 현전하는 16세기 판본은 저마다 반영된 수정 사항에 차이를 보인다.

16세기 말 임진왜란으로 일본에 유입된 후, 일본에서 조선의 성리학이 이황의 학문을 중심으로

수용되면서 『성학십도』는 조선본의 소장, 필사, 간행되는 방식으로 수용되었다. 특히 조선본을 직간 접적으로 수용한 이들은 주로 승려, 의사, 학자와 같은 지식인층이었다. 당시 비교적 조선본 입수가 유리했던 막부 및 임진왜란 참전 다이묘 중 이 책을 소장했던 이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소장한 이들이 갖고 있던 판본은 해주본 이전 및 이후 계통 모두 확인된다. 그리고 상업 출판으로 간행된 것은 수정 이전의 본문에 무진봉사가 추가되어 있어, 두 종류의 판본을 검토하여 절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17세기 동안 『성학십도』의 내용을 모두 동일하게 수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성학십도』를 통해 17세기 일본에서의 조선본 유통 및 수용 양상을 일부나마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다른 서적에 대한 동일한 검토가 축적된다면, 임진왜란 이후 조선본의 유통 및 수용 양상에 대해 전체적인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慶長年中記』
『高峯全書』
『國史館日錄』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退溪先生文集』

國立文化財研究所 編,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録: 日本 尊經閣文庫 所藏 韓國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菊池紳一, 『加賀前田家と尊經閣文庫-文化財を守り、傳えた人々』, 東京: 勉誠出版, 2015.

近藤盤雄, 『加賀松雲公』 中, 東京: 羽野知顯, 1909.

금장태, 『『聖學十圖』와 퇴계철학의 구조』,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吉岡眞之, “前田綱紀收集『祕閣群籍』の目録について,” 『禁裏本と古典學』, 東京: 塙書房, 2009.

新村出, 『南蠻廣記』, 東京: 岩波書店, 1925.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65.

田中尙子, “林蔺峯の書籍收集と學問-『國史館日錄』再考-,” 『室町の學問と知の繼承』, 東京: 勉誠出版, 2017.

尊經閣文庫 編, 『尊經閣文庫漢籍分類目録』, 東京: 尊經閣文庫, 1934.

- 川瀬一馬. “駿河御讓本の研究.” 『日本書誌學之研究』. 東京: 講談社, 1943.
- 川瀬一馬. 『増補新訂足利學校の研究』. 東京: 講談社, 1974.
- 川瀬一馬. 『古活字版之研究』. 東京: 安田文庫, 1977.
- 李退溪研究會, 阿部 吉雄 共編. 『(日本刻版) 李退溪全集』 下. 서울: 退溪學研究院, 1983.
- 大塚鐙. “鮮籍備忘 - 附 養安院書目-.” 『朝鮮學報』 48(朝鮮學會, 1968). 107-120.
- 문석운. “退溪의 “聖學十圖” 修正에 대한 연구.” 『退溪學報』 제130집(퇴계학연구원, 2011). 5-60.
- 宇津純. “京都圓光寺舊藏閑室元佶手澤本日録.” 『參考書誌研究』 30(1985). 15-26.
- 윤병태. “退溪書誌의 研究.” 『퇴계학과 유교문화』 5(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77). 87-152.
- 이유리. “17세기 일본 간행 조선본 性理學書의 서지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9.
- 천혜봉. “對馬島主宗家文庫 韓國典籍.” 『佛教美術』 8(1985). 53-71.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bumi Otsuka. 1968. “Memorandum of Joseon-Appendix: The list of Yoanin Collection (養安院藏書).” *ChosenGakuho*, 48: 107-120.
- Cheon, Hye-bong. 1985. “Korean bibliographical materials in Soke Bunko in Tsusima.” *Journal of Buddhist Art*, 8: 53-71.
- Geum, Jang-tae. 2001.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 (聖學十圖) and Structure of Toegye (退溪) Philosoph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Jun Uzu. 1985. “The catalogue of Kansitsu Genkitsu(閑室元佶)’s Collection in Enkoki (圓覺寺) in Kyoto(京都).” *Journal of Studies in Reference Bibliography*, 30: 15-26.
- Kazuma Kawase. 1943. “A Study on the books of Surugaoyuzuri (駿河御讓本).” *The Study on Japanese Bibliography*. Tokyo: Kodansha.
- Kazuma Kawase. 1974. *The Study on Ashikaga School*. Tokyo: Kodansha.
- Kazuma Kawase. 1977. *The Study on the Old Printed Editions*. Tokyo: Yasuda Bunko.
- Lee, Eury. 2019. *A Bibliographical Study on ZHUZILGY books of Joseon Editions Published in Japan in the 17th Century*. Doctoral Dissertatio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Graduate School.
- Masayuki Yoshioka. 2009. “The Study on the list of Maeda Tsunanori (前田綱紀)’s collection, Hikakukunseki(祕閣群籍).” *Royal books and Classics*. Tokyo: Hanawa Shobo.

- Moon, Suk-yoon. 2011. "A study on the Toegye's revision of Seonghaksipdo (聖學十圖, The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 *Toegye Hakbo*, 130: 5-60.
- Naoko Tanaka. 2017. "The Collecting books and Scholarship of Hayashi Gaho (林鷺峯): Reconsider 『GoKuShiKanNikki (國史館日録)』." *Learning of Muromachi (室町) Period and Succession of Knowledge*. Tokyo: Bensei Shuppan.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6. *The catalogue of Korean bibliographical materials in overseas: sonkeikaku library in Japan*. Daeje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Shinich Kikuchi. 2015. *Kaga Maedake and Sonkeikaku Bunko*. Tokyo: Bensei Shuppan.
- Yoon, Byung-tae. 1977. "The Study on Bibliography of Toegye(退溪)", *Toegye Studies and Korean Culture*, 5: 87-152.
- Yoshio Abe. 1965. *ZhuZi studies(朱子學) in Japan and Joseon*. Tokyo: The University of Tokyo Press.

